

“조선팝 예술가 찾아요”

전주시, 10월 ‘조선팝 페스티벌’ 참여할 음악인 27일까지 공개 모집

전주시가 오는 10월 열린 ‘2023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을 앞두고 대중 앞에 서조선팝 무대를 선보일 예술가를 찾는다.

전주시는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의 대중화를 선도할 조선팝 예술가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전통음악에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조선팝을 30분 정도 단독 공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연령, 나이제한 없음)이다. 시는 서류 및 영상 심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종 2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조선팝 페스티벌에 선정된 팀에게는 300만 원의 출연지급금이 지급된다.

참가를 원하는 조선팝 예술가는 전주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메일(egyouth18@daum.net)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 추진 사무국(070-4616-2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통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 축제인 ‘2023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을 오는 10월 선보인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과 달리 올해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조선팝을 더욱 집중해서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진

행한다.

특히,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은 전국의 실력 있는 조선팝 음악인을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공연 무대가 구상됐다.

전주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전국의 열정 가득한 실력과 조선팝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조선팝 상설공연에 무르익은 분위기를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조선팝 페스티벌로 전주를 조선팝으로 더욱 흥겹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리의 고장 전주를 전통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장르인 조선팝의 본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풍패지관(전주객사)과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에서 ‘조선팝 상설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와 한국의 전통문화, 즐거워요”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대원들이 7일 대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주시 곳곳을 누비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마음 건강 챙겨요”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9월 1일부터 최대 8주간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최대 8주간 시민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제별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9월부터 시작할 프로그램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제별로 구분해 △스트레스 관리 △자기 이해와 성장 △심리적 안정 △대인관계 향상 △자아 성취감 증진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별에 따라 향기치유와 아로마치유, 요가치유, 독서치유, 컬러치유, 예술치료, 원예치유 등이 운영된다.



다.

이 중 ‘자아성취감 증진’을 주제로 4주 동안 진행되는 찾아가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은 덕진구 2곳(금안2동·호성

동주민센터)과 완산구 4곳(완산동·평화1동·삼천1동주민센터·효자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7일부터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blog.naver.com/mindhealingcenter) 또는 전화(063-281-8576)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9월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추석을 앞두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나도 영화감독’ 영화 제작·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립 인후도서관, ‘웹드라마 편집·제작’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가 영화 제작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직접 영화를 제작·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영화·영상특화도서관인 전주시립 인후도서관에서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웹드라마 편집·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민들이 직접 영화

관련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영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총 5강의 강화를 통해 영화 제작 및 편집 관련 강의 및 실습 과정이 제공된다. 특히 영화 ‘귀여운 남자’와 ‘사잇소리’ 등을 제작한 김정욱 감독이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강연도 병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후도서관(063-281-6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웹드라마 편집·제작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평소 영화, 영상 제작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직접 편집,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영화감독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얼티밋뮤직페스티벌 대비 현장관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오는 13일까지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을 대비해 현장관리를 실시한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2023)의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수시로 순찰이 이루어지며, 행사장 주변에 장기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이동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불법 노점상의 유입을 차단하

고,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덕진구는 이번 현장 관리를 통해 행사 참가자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행사 현장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단속원들이 필요에 따라 증원 배치될 예정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

비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은 많은 관람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이에 따른 현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로, 이번 현장 관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과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식품제조·가공업소 소비기한표시제 실태조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13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표시제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

존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2023. 12. 31.)이 적용된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 조기 안착을 위해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조사내용은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소비기한 표시대상 제품수 대비 포장지 교체한 제품수 비율) 및 포장지 교체 계획(3/4분기, 4/4분기)이다.

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품목이 제조연월일(빙과류, 설탕 등)이나 품질 유지기한(율리고당, 된장 등)을 표시하는 제품일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완산구 관내 소비기한표시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